

국내뉴스

한국형 헬기사업 '유로콥터' 최종 결정

개발비 1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헬기사업(KHP: Korean Helicopter Program)에 참여할 해외업체가 프랑스와 독일 합작회사인 '유로콥터'사로 지난 12월 14일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전날 획득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 업체를 최종 결정했으며 이날 청와대 보고를 한 뒤 공식 발표했다.

KHP사업에는 미국의 벨사와 이탈리아·영국 합작회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프랑스·독일 합작회사인 유로콥터사 등 3개 해외업체가 참여했다.

한편 미국업체 일변도였던 항공 방위산업에 유럽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관행이나 한미동맹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유력시돼 온 벨사가 탈락한 이유는 한국형헬기 사업이 단순한 무기도입 사업이 아니라 국내 자체 개발을 위한 해외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15K, '슬램 이글'로 명명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인 F-15K가 '슬램 이글(Slam Eagle)'로 명명됐다. 공군은 지난 12월 12일 대구공군기지에서 2008년까지 도입되는 차기 전투기 F-15K의 명명식(命名式)을 갖고 이 전투기에 '슬램 이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유재건 국회국방위원장,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및 조해녕 대구시장 등 군과 지역기관 단체장 등 주요 인사 1천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군은 '전승(全勝)을 달성하는 하늘의 절대강자'임을 상징하기 위해 '전승을 거두다' 또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의 '슬램(Slam)'과 F-15의 상징인 '이글(Eagle)'을 조합한 명칭을 정다고 설명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축사를 통해 "F-15K의 보유는 국군 장병과 국민 모두의 자랑이자 기쁨이다"며 "F-15K가 한반도 상공을 위용 있게 날며, 하늘의 불침번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F-15K 전투기를 2007년 1월부터 제한적으로 운용한 뒤 같은 해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며, 정상작전



투입 이전에도 독도지역 방어 임무에는 F-15K를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F-15K 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대구 기지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F-4 기종은 2011년까지 도태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15K는 지금까지 모두 4대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40대가 인도돼 실전 배치된다.

공군 관계자는 "F-15K는 한반도 전 영역에 대한 전략 표적 공격과 응징보복 작전이 가능하다"며 "실전에 투입되면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해 대북 억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춰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B737 수평 미익 초도호기 출하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정해주, 이하 KAI)는 지난 11월 4일 창원공장에서 경상남도 이주영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보잉사 및 KAI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737 수평 미익 초도호기 납품 행사'를 실시했다. B737은 110~177명이 탑승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4,900여대 이상 납품되었고, 2005년에만 약 450대가 수주되어 수주잔고만 1,000여대 이상 되는 베스트셀러 기종이다.

금번 납품되는 B737 수평 미익은 지난 2004년 1월 B737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을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여개월에 걸친 개발작업을 통해 계약보다 2개월 선행하여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미국 워싱턴주 보잉의 렌트 공장에서 2006년 1월 최종적으로 항공기에 조립될 예정이다.

KAI 관계자에 따르면, "수평 미익의 성공적인 개발로 고난이도 5축 가공 기술 및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미크론 단위의 정밀 공차 조립 기술 등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KAI는 지난 1980년대말 B747 항공기의 날개 골격 구조물 납품을 시작으로 20여년간 보잉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 공군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15K 주익/전방동체, 아파치 헬기의 동체 및 B737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해주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B737 수평 미익의 성공적인 초도 개발은 민수사업을 한 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향후 KAI의 민수 부문을 확대해 나가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제작사 꿈 부푸는 대한항공, 3년간 R&D 1천억 투자

대한항공이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인 B787 기종 국제 공동개발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서상목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사장은 "B787 기종 공동개발과 관련해 향후 3년간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에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보잉과 B787 기종 날개 구조물인 윙팁(Wing Tip) 계약을 따냈다. 또한 12월중으로 미국 스피릿, 보트,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 5개사와 B787 개발 관련 추가 수주 계약을 차례로 맺을 예정이다. 또한 보잉과의 계약을 포함해 6개사와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 사장 설명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B787 프로젝트로 향후 20년간 최소 20억달러 이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계약은 국내 항공 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물량이다.

대한항공이 1986년 처음으로 항공기부품 수출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보잉, 에어버스 등에서 수주한 총액이 16억달러임을 비춰볼 때 B787 프로젝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서 사장은 "생산대수가 600대만 넘어도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787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현재 2,0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항공우주사업 분야 매출을 3~4년 내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김해공장 내 1만평 규모 공장시설을 별도로 확보해 B787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87 프로젝트는 대한항공이 항공 제작의 단순 하도급업체에서 메이저 공급사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UAE 두바이 에어쇼 2005 최고 참가 업체상 수상

KAI가 세계 최대의 에어쇼 중 하나인 '두바이 에어쇼 2005'에서 UAE 정부의 민간항공운항부(DCA: Department of Civil Aviation)로부터 '아시아 최고 참가업체상(Best Stand in Asia / Asia Pacific)'을 수상했다.

KAI 정해주 사장은 지난 11월 22일 오후(현지시간) 두바이 에어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참가업체 초청 행사장에서 두바이 에어쇼 조직위원장 Mr. Sheikh Ahmed Bin Saeed Al Maktoum으로부터 상패를 수여 받았다.



국내 항공업체가 세계적인 국제 에어쇼에서 최고 참가업체상을 받는 이번이 처음이며, 본 행사에는 에어쇼에 참가한 700여개 업체 대표와 각국의 공군 관계자 등 4,0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KAI는 유럽, 미주, 동구권에 이어 아시아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항공기 전시와 T-50 항공기 시범비행의 공로를 인정 받아 이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한편, KAI는 금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의 해외 첫 출품과 함께 주요 수출대상국 관계자들에게 시범비행과 실물 항공기 전시를 통하여 성능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발한 수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항공, 787 Nose Wheel Well Assembly 사업 수주계약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지난 12월 16일 부산 김해공장에서 권경환 민항기사업 공장장과 미Spirit Aerosystems Inc.(구 Boeing-Wichita)사의 Vice President이며 787 program 책임자인 John Pilla씨가 참석한 가운데 총 사업규모 약 3억 불의 787 Nose Wheel Well Assembly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787 사업 총 수주액은 15억 불로,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 787 사업으로 수주한 금액은 5억 불 규모에 달하며 향후 수주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퍼스텍은 지난 18일, 프랑스의 탈레스사와 전략적 MOU를 체결하였다.

787 사업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업으로 이들 부품에는 항공산업에서 가히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대거 투입된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국제적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내수용 항공기 개발 또는 국제적 인증이 완료된 제작 사업이 주류를 이룬 반면, 선진 항공사들이 후발 주자들의 참여를 꺼려하는 개념설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은 대한항공의 기술적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넥스원퓨처-보잉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관련 합의각서 체결

넥스원퓨처(주)는 지난 10월 20일, 미 보잉사와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E-X사업은 한국 공군이 2011년까지 약 2조원의 예산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4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방부가 기종 선정을 위해 보잉사의 737 AEW&C 기종과 이스라엘 ELTA사의 G-550 기종을 놓고 최종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말쯤 최종 기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보잉사의 737 AEW&C 기종이 선택되면, 넥스원퓨처는 이번에 체결한 MOA에 근거하여 보잉사와 본 계약을 맺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장착될 통신장비를 공급하게 된다.

넥스원퓨처가 공급하는 ARC-232 U/VHF 통신장비는 국방 표준장비로써 현재 F-15K, T-50, KO-1, Ka-32 등 항공기 및 헬기에서 운용중에 있으며, 차후 기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대전연구소를 설립, 항공전자 부문 R&D를 강화시킨 넥스원퓨처는 이번 MOA 체결을 시작으로 E-X 사업에서 참여 부분을 확대하는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각종 전략적 사업에서도 보잉사와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퍼스텍, 프랑스 탈레스사와 전략적 MOU 체결

퍼스텍(주)이하 퍼스텍, <http://www.firstec.com.co.kr>는 세계적 항공 방산업체인 프랑스 탈레스(Thales)사와 항공전자장비의 공동 개발, 생산, 판매, 정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우선 금년내 실무팀을 구성,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수립하고, 시장분석, 양국 규제사항, 양사간 업무분담 및 기술지원, 해외자금조달, 기술이전 조건 등을 협의 설정하여, 내년 초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퍼스텍 관계자에 따르면,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는 항공전자분야만이 아닌 방산사업협력으로 이어져 금년내 별도의 계약을 체결, 기존 방산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발전시켜 첨단화 된 정밀 방산부품을 제작, 해외로 수출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퍼스텍은 지난 8월, 한국형헬기프로그램 (KHP) 핵심구성품 개발업체로 선정,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과제 주주, 메카노 21 사업의 추진항공기용 핵심전자장비 독자 설계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항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개발사업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지난 11월 말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개최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에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항공기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4년 9월에 개발 착수된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는 반경 50km 범위의 주·야간 감시정찰에 활용될 목적으로, 1단계(04. 9~07. 8)에는 플랫폼 시제를 개발하고, 2단계(07. 9~09. 8)에 상용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통제·항법장비 분야의 전문업체인 STX엔진, 유콘시스템 및 마이크로인피니티사 등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는 2005년6월에 비행체 초기모델을 완성하여, 동 분야 국내최초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술기준적합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에서 조종성, 안정성 및 엔진성능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대한항공은 근접감시용 무인기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국내외 무인기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급속한 성장추세에 있는 세계의 무인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